

지역 소식통

완주군, 인구정책 전략수립 박차

완주군이 인구정책 전략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 시점의 용역 진행 상황과 단기, 중장기 계획 로드맵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위원 및 (사)전북미래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현황 및 전망 분석, 국내외·지자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완주군 인구정책 수요 분석, 완주군 인구기본정책 비전 제시,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등 인구유입 및 유출 방지안 도출 및 단기·중장기 계획 로드맵을 보고했다.

특히, 군민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구 감소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생활의 불편함, 소풍·문화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안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및 신혼부부 주택문제 및 청년들의 취업 등의 요인을 꼽기도 했다. 군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관련 내용이 충분히 인구전략에 반영되도록 주문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세외수입운영 우수기관 3년연속 달성

김제시는 전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결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세외수입증수율△세외수입 결손처분 실적△과태료 징수율△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입상실적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의 전반적인 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김제시는 2016년 세외수입업무 재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외수입징수팀을 설치해 각 부서의 누락된 과년도 체납액을 선도적으로 인수하고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제237회 시정질문

오상민·김영자·김주택 이장자 의원 불합리한 시정 질다·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지난 19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장자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자치단체장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 유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김제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부시장, 보좌관, 비서실장, 직영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이 임명·승인하는 단체장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시의회의 협약을 체결할 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개발업자와 주민과의 갈등, 교통편의 제공 등은 도외시 하고 기업유치와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경제도약에 치우쳐 시민 모두의 행복에는 무관심한 시정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경제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각각을 갖춘 시정운영을 할 것을 요청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지난 2년간 김제시민들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김제지평선축제의 주 무대인 과목제가 특색없는 경관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축제기간 외 방

문객 수가 지평선축제 방문객의 5.0%에 지나지 않는 등 매년 저조한 방문객 수로 김제 소득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사계절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벽골제내의 1만㎡의 대지 아트 부지와 주변의 코스모스 식재 장소에 계절별 경관 식물 식재하고 가로수인 이팝나무를 뺏나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통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실내형 어린이농경놀이체험관 조성 등을 통하여 벽골제를 가족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다른 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는 농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생산장려금 등의 정부 정책지원과 쌀과잉생산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논공 재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났으며 올해는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면적은 3,500ha까지 증가했지만 농림식품부의 지원사업 정책변경으로 목표 배정량이 작년 배정량의 57.0%수준인 1,723ha로 크게 감소하는 등 매년 배정량이 감소하고 있고 2021년, 중국에는 본 사업을 중단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또는 축소 시행하여 농업인의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김제시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제시의 주요 논공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논공 재배 특화단지' 조성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자체적인 지원 계획과 논공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유통판로와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정책 마련 방안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장자 의원은 지난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별 1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지만 김제시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했던 병원마저 응급의료서비스 면허를 반납하고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의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인접 시로 이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의료원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현재 논의되는 김제시의 응급실 운영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추진하는 가족센터의 신축 부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높은 토목공사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부지변경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요청했으며 가족센터를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도출된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고 현 신축부지의 경우는 노인복지타운과 밀접한 점을 반영해 노인 정책 사업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만경읍에 거주하는 문모(86)씨는 지난 19일 정부로 받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제노인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위해”

만경읍 독거노인, 재난기금으로 선풍기 구입해 기탁

김제시 만경읍에 거주하는 문모(86)씨는 지난 19일 정부로 받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제노인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문씨는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에 의지해 살아가시면서 고령에 시력과 청력의 장애가 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아왔다.

평소 자신을 돌봐주는 김제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왔고 그간 만경읍등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4년째 기부하시면서 금번 재난기금 역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탁했다.

이에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경란)에서는 할머니의 뜻을 모아 직원 30여명이 이 기부에 함께 동참하였고 130만원을 추가 모금해 후서기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선풍기 50대를 구입해 노인맞춤돌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미담이 주위 이웃등에 전파되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원주=곽노태 기자

완주군, “규제입증요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완주군에 규제 입증요청하는 절차가 한층 쉬워졌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기업 등 누구나 담당자에게 실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지하도록 건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 신문고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완주군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의 군민참여 > 참여 > 규제입증요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입증요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상정해 최대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 존치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정책제안 발굴 활발

박성일 군수, “지역의 다양한 청년 의견 수렴해 적극 반영 하겠다”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이 다양을 정책을 제안하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정책이장단은 13개 읍면별로 청년이장을 선정해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부여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9일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진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은 지역의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이장들의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다.

비봉면의 김태수 청년이장은 청년창업농과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은 후 계능 청년들이 많은 만큼 청년농업을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제안했다.

소양면 임찬양 청년이장은 소양면에



도 삼례, 고산처럼 청년거점공간 마련을 희망하고, 와일드푸드 축제기간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소양청년을 주축으로 체험부스를 추진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삼례읍 이자영 청년이장은 삼례읍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모이고 있어 이 지역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봉동읍의 박상진 청년이장은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봉동청년들이 이장단 활동 및 더 나아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이장단이 제안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이 적극 협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장단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20년 6월 22일부터 12월까지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증을 50~80% 예방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미접종한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의료기관 28개소(고려신경외과의원, 금산제일의원, 김기범내과의원, 김제고려내과의원, 김제오케이의원, 김제우석병원, 김중범소아과 의원, 김태형신경과의원, 민음병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서울정형외과의원, 수재학의학과의원, 유운용내과의원, 윤의원, 가족사랑요양병원, 이명철정형외과의원, 제일정신과의원, 조용거소아과 의원, 주시량의원, 참좋은내과의원, 푸른가정의학과의원, 하나비비인후과의원, 한솔내과의원, 진절현정형외과의원, 현대의원, 효드림요양병원, 미래요양병원, 희망병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